

‘그리움’을 ‘나’로 바꾸어 보자. ‘나’는 ‘나’로 바꾸어 보자.  
 ‘나’는 ‘나’로 바꾸어 보자. ‘나’는 ‘나’로 바꾸어 보자.

[illegible]

**이공계와도 멀지않고 문과계와도**

자본주의 제국은 무력으로 우월하지 못하  
자본주의 제국이 될 수 있는 것  
모든 국가가 원하든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것

[illegible]

다들 물어봐요. 왜냐하면  
놀고 싶은 욕망 때문

차별금지법  
인사예수교회를  
기독교인들에게

1. **배려응답**  
 2. **를수마사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1990년대 초반  
 2. 1990년대 중반  
 3. 1990년대 후반  
 4. 2000년대 초반  
 5. 2000년대 중반  
 6. 2000년대 후반  
 7. 2010년대 초반  
 8. 2010년대 중반  
 9. 2010년대 후반  
 10. 2020년대 초반  
 11. 2020년대 중반  
 12. 2020년대 후반

**비밀**  
배치, 응진, 퇴진  
고용용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찬양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인다

[illegible]

**생각이요 문답이요**  
**‘조선시대’ 이야기**

## 차별금지법은

## 차별에 맞서는

**당신의 용기를  
돕는 도구입니다.**

차별은 당신의 일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선이나 호칭으로,  
때로는 배제와 탈락으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차별에 맞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별의 경험이 피해와 상처가 아닌, 용기 있는 대응과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170여 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14개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                                                                                      |
|-------|--------------------------------------------------------------------------------------|
| 홈페이지  | <a href="http://equalityact.kr">equalityact.kr</a>                                   |
| 트위터   | <a href="https://twitter.com/equalact">@equalact</a>                                 |
| 인스타그램 | <a href="https://www.instagram.com/equalityact_allpeople">@equalityact_allpeople</a> |
| 페이스북  | <a href="https://www.facebook.com/equalact2017">/equalact2017</a>                    |
| 카카오채널 | <a href="https://me2.id/equalityact">@equalityact</a>                                |
| 메일    | <a href="mailto:equalact2017@gmail.com">equalact2017@gmail.com</a>                   |

후원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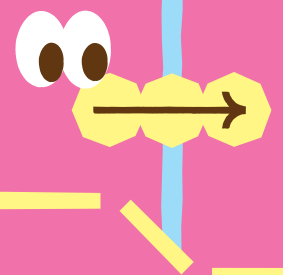
이 리플렛은 차별금지법있는나라 액션크루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바라볼까요?**

**작은 것부터  
배우고 싶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장소라는데,  
쫓겨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소수자를 약자의 자리로 내모는 구조,  
편견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가 차별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 누군가가 되지 않도록,  
평등의 기준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을 선물합니다.



사무실 책상에 내 진짜 이름이 적힌 명패가 생겼다.  
'야 베트남'이라고 불리던 전 직장과 달리,  
여기선 모두가 나를 존중하며 이름을 불러준다.

주민센터에 가니 수어와 음성 안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문턱 없이 이용하는  
당연한 풍경이 참 반갑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도서관 직원분들이 다 같이  
차별 예방 교육을 받고 있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이  
날마다 더 평등하게 변하고 있다.

혼자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카드를 만들었다.  
내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와 같이 오라'며 돌려보내지 않고,  
내 눈을 보며 찬찬히 설명해 주어 든든했다.

할머니, 어린 조카와 식당에 갔다.  
키오스크 대신 직접 주문을  
도와주는 직원과 조카를 환영해 주는  
미소 덕분에 식사가 더 맛있었다.

오늘 드디어 건설 현장 메인 공정에  
투입됐다! '여자는 안 된다'는 편견 없이,  
내 실력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땀 흘리니 정말 보람차다.

일할 때

배울 때

누군가 상처받기 전에 학교가  
먼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혐오 표현 없는 교실 덕분에  
매일 마음 편하게 등교한다.

성소수자인 친구도,  
휠체어를 탄 친구도  
누구 하나 주눅 들지 않는 교실.  
우리가 우리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이 학교가 참 좋다.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팔 때

차별금지법이 바꿀 기분 좋은 변화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